



빙그레, 논산시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

빙그레가 충남 논산시와 협력해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빙그레는 전날 논산시, 논산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론볼 선수 6명을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빙그레



소공연, 네이버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한제과협회, 네이버, 네이버페이(Npay)와 손잡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 소공연은 지난 12일 대한제과협회, 네이버, Npay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기보, 유암코와 구조조정기업 재도약 지원 맞손

기술보증기금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구조조정기업들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보는 유암코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유암코 본사에서 '구조조정기업 재도약을 위한 기술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유암코는 구조조정 검토기업과 채권인수 대상기업 가운데 기술평가가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평가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

/기술보증기금



여경협, 건설자원업계와 여성기업 성장 협력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건설자원 산업 분야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경협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분회에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여성기업 성장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성기업의 경영역량을 높이고 업종 간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인자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지연 △해운정책과장 이민석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김수정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시설기획과장 김훈 △문화미디어산업실 콘텐츠산업정책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 김혜주

부음 ▲백분수씨 별세, 나동연(경남 양산시 장)씨 모친상=12일,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73 양산농협 양산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5일, 장지 울산하늘공원. 055-366-4440.

삼성전기·LG이노텍, 전자·IT 기술혁신 공로 정부 포상

첨단부품 경쟁력·생산혁신 인정
김위헌 상무, MLCC 국산화 산업포장
조지태 전무, AI 혁신 은탑산업훈장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임원들이 국내 전자·IT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13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기 김위헌 MLCC제조기술팀장(상무)과 LG이노텍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1회 전자·IT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각각 산업포장과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전자·IT의 날은 지난 2005년 전자·IT 산업 수출 1000억달러 돌파를 기념해 제정됐으며,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김위헌 상무는 26년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분야에서 핵심 기술과 신



김위헌
삼성전기 MLCC제조기술팀장

제품 개발을 주도하며 IT·전장용 고부가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0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김 상무는 2009년 세계 최초로 0603 크기(가로 0.6mm, 세로 0.3mm)의 1μF(마이크로패럿) MLCC를 개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같은 크기의 2.2μF 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후 전장용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 개발을 이끌며 2022년



조지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

과 2023년 업계 최초로 전장용 고용량 MLCC를 선보였다.

2024년부터는 MLCC제조기술팀장을 맡아 AI 서버용 고부가 MLCC 개발과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조지태 LG이노텍 전무는 광학솔루션과 반도체 기반 사업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AI 전환(AI)을 통한 제조혁신과 핵심 장비 국

산화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4년 LG이노텍에 입사한 조 전무는 베트남 생산법인장과 광학솔루션 생산담당, 광학솔루션사업부장 등을 거치며 카메라 모듈 사업의 생산혁신을 주도했다. 특히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자동 품질 점검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LG이노텍은 모바일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글로벌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을 맡아 반도체 기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투자를 추진 중이며, 향후 5년 내 패키지솔루션 사업을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골든블루, '노마드' 현장 마케팅 강화

마포 이어 영등포서 게릴라 캠페인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노마드의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를 초청한 현장 행사와 바텐더 대상 교육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바빔바에서 노마드 아웃랜드의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조아오 비센테와 함께 게스트 바텐딩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별 주요 바를 순회하는 오프라인 프로젝트 '게릴라 노마드 캠페인'의 일환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등포구에서 두 번째 캠페인을 열었다.

행사에서 조아오 비센테는 노마드의 숙성 과정과 브랜드를 소개하고 시그니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앰버서더를 앞세운 두 번째 '게릴라 노마드 캠페인'을 성료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처 칵테일 2종을 선보였다. 행사 장소인 바빔바도 노마드 위스키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칵테일 2종을 공개했다.

본 행사에 앞서 영등포구 일대 주요 업장 바텐더 2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웅제약, 폐PC 재활용으로 탄소 저감

교체 대상 업무용 PC 150대 기부

대웅제약이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 저감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1석 2조' 효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대웅제약은 교체 주기를 맞은 업무용 PC 150대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일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된 PC는 전문가의 재생 프로세스를 거쳐 디지털 소외계층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PC 1대 재사용 시 약 232kg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번에 대웅제약이 기부한 150대가 재활용되면 탄소저감 효과는 총 34.8톤에 달한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그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왔다. 올해 3월 '세이프 더 헬스 인 제주' 행사를 통해 제주 해녀 3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했으며 9월에는 서울시 '손닥터 9988'과 협력해 당초 전 단계 시민 1000명의 혈당 관리를 돕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유원, 수험생 위한 '찰떡 합격' 기획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동반성장물에서 2027 수능에 맞춰 고3 수험생들의 합격을 지원하는 '찰떡같이 붙자! 합격 기원 기획전'을 개최한다.

13일 한유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에는 찹쌀떡, 초콜릿, 곡물바 등 수험생을 위한 간식

과 함께 보은 텃밭러, 립밤, 핸드크림 등 컨디션 케어 용품 등 80여 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동안 해당 제품은 특별 할인가로 판매되며 5% 추가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 우주태양광 영화로 만든다

시네마바이브랜드 첫 파트너 참여
우주태양광 소재 영화 3편 선정

한화그룹이 우주태양광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참여해 국내외 대중과의 접점을 넓힌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사업과 기술에 담긴 가치를 영화 속 이야기로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감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영화 콘텐츠 개발·제작 플랫폼 '시네마바이브랜드(Cinema by Brand)'의 첫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네마바이브랜드는 이노션과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ACFM)이 공동 기획한 플랫폼으로, 기업과 영화 창작자를 연결해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소재로 작품을 개발·제작한다.

한화는 우주태양광이 널리 활용되는 미래의 우주를 작품의 배경으로 제시

했다.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B2B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친숙한 영화 콘텐츠를 통해 한화가 사업과 기술로 만들어가려는 미래를 대중에게 알리려는 취지다.

우주태양광을 소재로 제작할 영화는 2017년 도쿄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에드먼드 여(Edmund Yeo) 감독의 'Solar Poet', 홍의정 감독의 '달노을', 이진호 감독의 'The New Mission' 등 3편이다. ACFM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KG) 등 영화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7년 중 제작해 국내외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 작품은 우주를 배경으로 인간의 기억과 감정, 생명, 미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심사위원들은 영화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화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



김정아 이노션 대표(왼쪽 두 번째), 박지영 한화커뮤니케이션사업위원회 부사장(왼쪽 세 번째) 등이 12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특별 세션에서 대담을 나누는 모습.

/한화

GS칼텍스 '꾸스', 런던광고제 2관왕

탄소포집 기술 놀이로 풀어내

GS칼텍스가 저탄소 신사업을 대중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광고제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놀이와 교육으로 풀어낸 'CCU-S(꾸스)' 캠페인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쉽게 전달하는 소통 역량을 인정받았다.

GS칼텍스는 'CCU-S' 캠페인이 '2026 런던국제광고제(London International Awards)'에서 크리에이티비티 인(Creativity in) PR 부문 은상과 크리에이티브 전략(Creative Strateg

y) 부문 동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뉴욕페스티벌에서 4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고 8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 전략 부문 크리스탈상을 받은 데 이어 성과다. 광고회사 아이디어와 협업한 이 캠페인은 낮은 CCUS 기술을 체험형 콘텐츠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교구인 'CCUSK IT'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방귀를 탄소 가스에 비유하고, 가스를 포집해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놀이로 구현했다.

체험 교구와 함께 과학 크리에이터 퀘도가 CCUS의 원리를 설명하는 콘텐츠도 선보였다.

/원관희 기자